

행정도 참패한 한국 축구

59년만의 아시안컵 우승 목표 '좌절'
 많은 부상자·체력·컨디션 조절 실패
 사상 초유 '의무팀 이탈' 사태까지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 컵은 한국 축구에 큰 상처를 남겼다. 59년 만의 우승을 목표로 야심 차게 출정했으나, 준결승이 열리는 날 귀국길에 오르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대회 기간 중 드러난 대한축구협회의 미숙한 행정은 믿고 지켜 봤던 팬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다.

이번 대회에는 유독 부상자가 많았다. 개막도 하기 전 나상호(FC도쿄)가 팀을 이탈했고 이재성(보훤)과 기성용(뉴캐슬)도 필리핀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다쳤다. 마지막 아시안컵이었던 기성용은 재활 중 다시 부상이 도져 소속팀으로 조기 복귀했다. 황희찬(함부르크)은 마지막 경기인 카타르와의 8강전에 결장했다. 다른 선수들의 체력 컨디션 역시 정상은 아니었다.

이는 해당 기간 중 벌어진 의무팀 이탈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회 시작 전 재활트레이너 팀장인 A씨가 귀국길에 올랐다. 비레인과 16강이 끝난 뒤에는 팀원인 B씨마저 집을 꾸러 떠났다.

A씨는 오랜 성인 대표팀 생활과 빼어난 능력으로 선수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한 해외파 선수는 A씨에게 자녀들의 학비 지원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이 뛰고 있는 국가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 했을 정도다.

A씨는 소집 기간이 아닐 때도 수시로 선수들의 상태를 살폈다. 꾸준히 선수들을 점검하면서 쌓은 노하우 덕분에 비상시 발 빠른 대처가

가능했다. B씨 역시 러시아월드컵 등 현재 선수들과 여러 메이저 대회를 치러 누구보다 개개인의 상태를 잘 안다.

이들의 계약 기간이 아시안컵 개막 전인 지난해 12월31일부로 끝났다는 점에서 사태는 시작된다. 더 큰 문제는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알면서도 두 사람을 아시안컵에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회 종료 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팀 전체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 여론이 악화되자 김판곤 부회장은 간담회를 열고 "캠프에 오기 전에 모든 계약을 완료해야 했다.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트레이닝 캠프와 대회를 치르게 된 부분은 행정 실수"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미 계약기간이 끝난 이들이 당연히 대회를 함께 치러줄 것이라는 것은 무척 위험한 생각이다. 계약이 만료된 선수가 계속 경기를 뛰는 경우가 없듯 스태프들에게도 같은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했다. 관행이라는 김 부회장의 해명을 보면 지금까지 아무 탈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추후 대한축구협회가 마음을 바꿔 계약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들은 나동강 오리아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시기에는 다른 팀을 구하기도 어렵다. 중도 이탈한 두 사람의 도의상 책임을 지기 어려운 이유다. 대한축구협회는 남은 인원과 급파된 이들로 새롭게 의무팀을 꾸려지만 분위기는 이미 위축돼진 뒤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축구는 실력과 행정 모두 아시아 최강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뉴스



전남드래곤즈, 포르투갈 전지훈련 출발

전남드래곤즈(사장 조창명) 선수단이 28일 오후 1시 15분 인천 공항에서 포르투갈 알가브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선수단은 2월 17일까지 21일간 벌어지는 전지훈련을 통해 더 끈끈하고 가족같은 팀, 경기의 주인공이 되는 팀, 공격적인 팀이 되어 돌아올 계획이다.

지난 7일 선수단 소집 후 광양

에서 체력 훈련에 집중할 전남드래곤즈는 이번 포르투갈 전지훈련 기간 동안 선수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체력과 상황에 따른 전술 능력 극대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올림픽 대표 김건용, 기광을 갖춘 신인선수뿐만 아니라 광안, 정재희, 정희웅 등 프로에서 경험있는 선수들이 합류함에 따라 주전 경쟁이 뜨겁고 치열할 것

로 예상된다.

광양에서 선수들의 훈련모습을 지켜보며 선수들의 능력에 만족감을 나타낸 파비아노 감독은 "이번 해외전지훈련 기간동안 선수들이 시즌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과 전술적인 면에서의 상황인식 및 이후에 대처하는 전술적인 판단에 대한 완성도, 팀이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전지훈련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광양=김승호 기자

강정호 "올해 MLB 재기상 받고싶다"

2년 4개월만에 피츠버그 공식 행사 참석 "올해 좋은 시즌 보낼 것"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PNC파크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2년 4개월 만의 일이다.

피츠버그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2019년 팬 페스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정호는 오랜만에 팬들과 소통했다. 피츠버그 트리뷴 리뷰는 "강정호가 약 2년 반 만에 PNC 파크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팬과 소통했고 취재진과 13년 동안 인터뷰를 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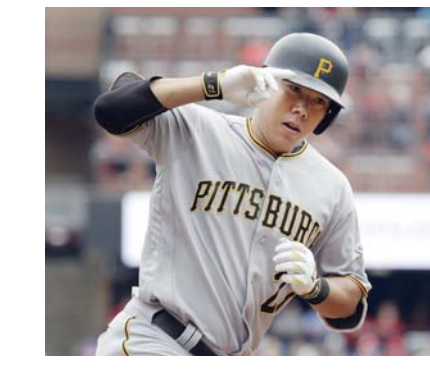
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파로 미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2017시즌을 통째로 날렸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4월 말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강정호는 싱글 A 트리플A를 거쳐며 빅리그 복귀를 준비하다 왼 손목을 다쳐 지난해 8월 4일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피츠버그는 강정호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다. 피츠버그는 강정호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지난해 정규시즌 마지막 3연전을 앞두고 강정호를 빅리그로 불러올렸다. 강정호는 3경기에서 6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보장 계약의 마지막 해였다. 피츠버그 구단은 올해 길러왔던 구단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강정호를 자유계약선수(FA)로 풀어준 뒤 계약기간 1년, 총액 55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 550만 달러를 모두 보장해주지 않고 보장 금액 300만 달러, 보너스 250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

피츠버그는 여전히 강정호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2015~2016년에 보여준 모습을 되찾기를 원하고 있다. 2015~2016년 피츠버그의 중심 타자로 활약한 강정



호는 2년간 229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3(739타수 202안타) 36홈런 120타점 8도루 105득점에 장타율 0.483, 출루율 0.355를 기록했다.

강정호는 이날 인터뷰에서 "항상 피츠버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피츠버그와 재계약하기를 원했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팀이 2015, 2016년과 같은 활약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팀의 장타력에 도움이 돼 주길 바란다"며 "올해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린트 허틀 피츠버그 감독은 "강정호가 피츠버그에 온 이후 가장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강정호의 공백이 길었던 만큼 2015, 2016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열린 마음으로 강정호를 바라보겠다. 어떤 계약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료들의 기대도 감독과 마찬가지로다. 스타팅 마르테는 "우리는 강정호가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日 오사카, 아시아 최초 女세계랭킹 1위

정현 25위에서 50위로 하락...조코비치 1위 유지

지난해 US오픈과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여자 단식을 잇따라 제패한 오사카 나옴이(22·일본)가 여자프로테니스(WTA) 단식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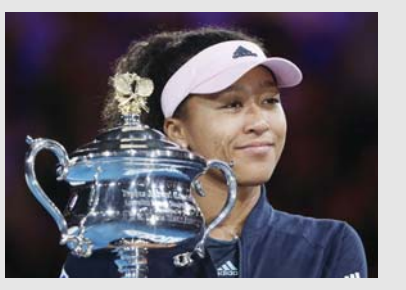
오사카는 28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7030을 획득, 호주오픈 이전 4위에서 1위로 점프했다. 오사카는 28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페트라 크비토바(29·체코) 2

위를 2-1(7-6(7-2) 5-7 6-4)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남녀를 통틀어 아시아 국적 선수가 세계랭킹 1위에 오른 것은 오사카가 최초다.

호주오픈 이전까지 1위였던 시모나 할렘(28·루마니아)은 호주오픈 16강에서 탈락해 3위로 내려앉았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8·한국체대)은 25위에서 50위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호주오픈 남자 단



식에서 4강 신화를 써낸 정현은 올해 2회전에서 탈락, 랭킹 포인트가 910이 돼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호주오픈에서 대회 남자 단식 통산 최다 우승 기록(7회)을 갈아치운 노바 조코비치(32·세르비아)는 랭킹 포인트 1만65로 1위를 유지했다.

자연의 숨겨진 매력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란 구래군은 지리산은천, 창새미골, 회연사, 선진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야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